

2026년 2월 2일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 투자전략팀

KIWOOM WEEKLY

모든 관심은 코스닥이지만

이번주 국내 증시는 1) 금요일 미국 증시 및 귀금속 조정, 2) 차기 연준의장 불확실성, 3) 미국 1월 고용, ISM 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지표, 4) 알파벳, 아마존, 팔란티어, KB금융,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외 기업 실적, 5) 코스닥 FOMO 지속 여부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050~5,350pt).

차기 연준 의장의 성향 분석을 둘러싼 수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 하지만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자체가 초래할 가격 변동성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 이보다는 주중 예정된 주도주들의 실적, 섀다운 충격이 제거된 1월 비농업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장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적절. 이번주에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대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매매 집중세가 이어질 전망(지난주 ETF 수급과 연관된 금융투자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는 10조원 대로 주간 단위 사상 최대). 다만, 미국발 불확실성(차기 연준 의장, 귀금속 폭락 여진 등)이 지난주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유인을 키울 수 있기 때문,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



Strategist 한지영
hedge0301@kiwoom.com



Market/ESG 아성훈
sh076@kiwoom.com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월 30일 현재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서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고지사항

-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특히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 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1. 지난 주 주식시장 동향

국내 증시는 주 초반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 속 개인 ETF 수급이 대거 유입된 영향으로 코스닥은 급등세 연출. 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및 미국 주요 빅테크 실적 발표 속 반도체 슈퍼사이클 기대감 지속되며 코스피도 상승 마감 (KOSPI +4.7%, KOSDAQ +15.65%)

주 초반 국내 증시는 코스피 5,000pt 도달 이후 단기 과열 인식 속 ICE 충격발 섰다운 우려 확대 등으로 코스피는 하락세로 출발. 코스피는 숨고르기 흐름 이어간 가운데 정부의 코스닥 활성화 정책 기대감이 본격적으로 부각됨에 따라 개인 ETF 수급발 금융투자 매수세가 시가총액 대형주 중심으로 집중된 영향으로 코스닥은 7%대 급등세로 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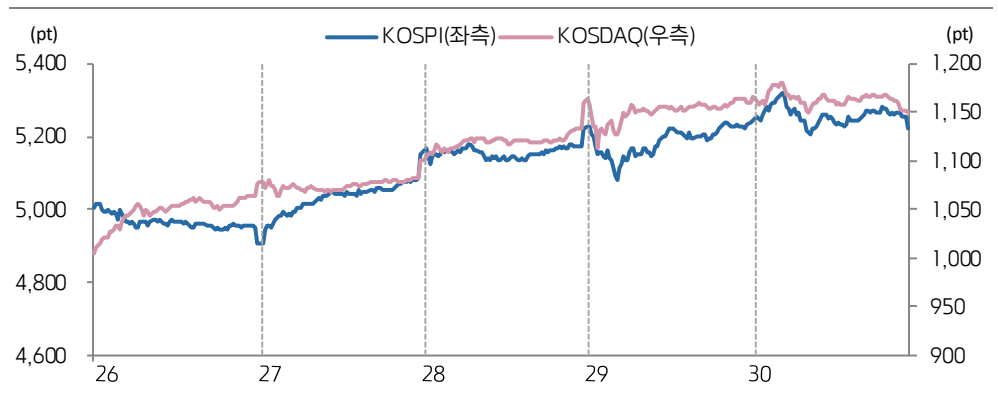
한편,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실적 발표를 앞두고 주요 외국계 증권사의 목표주가 상향 리포트, SK하이닉스의 엔비디아 HBM4 물량 70% 회복 소식이 호재로 작용하며 대형 반도체 재차 랠리 이어감. 이러한 가운데 고객예약금 역대 처음으로 100조원 레벨선을 돌파하며 증시 유동성 랠리를 뒷받침. 또한, 미일 공조 개입, 트럼프의 달러 약세 용인 발언에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 레벨까지 급락한 점도 국내 주식시장에 훈풍으로 작용.

1월 FOMC에서 연준은 시장 예상대로 기준 금리를 3.50~3.75%로 동결. 연준은 경제, 고용 전망치 상향하면서도 인플레이션은 경계하는 스탠스를 내비침. 다만, 금번 금리 동결은 이미 예상했던 내용이었기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은 제한되었음. 한편, 빅테크 실적 시즌에 진입한 가운데 Azure 분기 성장률 둔화 속 마이크로소프트는 시간 외에서 급락. 반면, 메타는 FY26 Capex 가이드런스 상향 조정에도 이익 증가세 지속될 것이라는 전망에 급등하며 AI 수익성 여부에 따라 빅테크 주가는 차별화 흐름 연출. 다만, AI Capex 사이클 지속은 국내 반도체주에 훈풍으로 작용

업종별로 증권(+17.34%), 의료/정밀기기(+12.3%), 통신(+8.96%), 전기/전자(+8.81%), 제조(+5.32%)이 강세를 보인 가운데, 전기/가스(-4.22%), 건설(-3.01%), 운송/창고(-1.96%), 운송장비/부품(-1.53%), 제약(-1.4%)은 부진한 흐름

한편, 외인(-2조 3,758억원)은 IT 서비스(+9,269억원), 금융(+5,613억원), 제약(+3,664억원), 유통(+1,890억원) 순으로 순매수, 기관(-3조 2,875억원)은 증권(+1,340억원), 부동산(+339억원), 통신(+250억원), 섬유/의류(+69억원) 순으로 순매수

KOSPI, KOSDAQ 주중 차트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이번 주 주요 경제지표 발표 일정

| | 국가 | 경제지표 | 대상 | 전망치 | 이전치 | | |
|-------|-----------------------------------|-----------------------------------|--------------------------------------|------------|--------|-------------|-------|
| 2월 2일 | 월 | 중국 | 레이팅독 제조업 PMI | 1월 | 50.0 | 50.1 | |
| | | 한국 | S&P 제조업 PMI | 12월 | - | 50.1 | |
| | | 미국 | S&P 제조업 PMI (최종치) | 1월 | - | 51.9 | |
| | 실적 | 삼성 SDI | | | | | |
| 2월 3일 | 화 | 미국 | ISM 제조업 PMI | 1월 | 48.3 | 47.9 | |
| | | 한국 | CPI (YoY) | 12월 | 2.0% | 2.3% | |
| | 실적 | 팔란티어, 머크 | | | | | |
| 발언 | 애틀랜타·리치몬드 연은 총재, 보우먼 미연준이사 | | | | | | |
| 2월 4일 | 수 | 미국 | JOLTs 구인이직건수 | 12월 | 7,100k | 7,146K | |
| | | 중국 | 레이팅독 서비스업 PMI | 1월 | 51.7 | 52.0 | |
| | | EU | PPI (YoY) | 12월 | - | 51.5 | |
| | | | CPI (YoY, 잠정치) | 1월 | - | 1.9% | |
| | | 미국 | ADP 취업자 변동수 | 1월 | 45K | 41K | |
| | | | S&P 서비스업 PMI (최종치) | 1월 | - | 52.5 | |
| | | 실적 | 한화오션 | | | | |
| | | AMD, 일라이릴리, 애브비, 노바티스, 도요타 | | | | | |
| 2월 5일 | 목 | 미국 | ISM 서비스업 PMI | 1월 | 53 | 54.4 | |
| | | 회의 | ECB 통화정책회의 | | 2월 | - | 2.15% |
| | | 실적 | KB 금융, 신한지주,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알파벳 | | | | |
| 2월 6일 | 금 | 한국 | 경상수지 | 12월 | - | \$12,236.7M | |
| | | 미국 | 시간당 평균임금 (MoM) | 1월 | 0.3% | 0.3% | |
| | | | 실업률 | 1월 | 4.4% | 4.4% | |
| | | | 비농업고용자수 | 1월 | 70K | 50K | |
| | | | 미시간대 소비자신뢰지수 (잠정치, 7일) | 2월 | 55.0 | 56.4 | |
| | | | 미시간 1년 기대 인플레이션 (잠정치, 7일) | 2월 | - | 4.0% | |
| | | 실적 | NAVER | | | | |
| | | | | 아마존 | | | |
| 발언 | 애틀랜타 연은 총재 | | | | | | |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 한국 증시 전망

이번주 국내 증시는 1) 지난 금요일 미국 증시 및 귀금속 시장 가격 조정, 2)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불확실성, 3) 미국 1월 고용, ISM 제조업 PMI 등 주요 경제지표, 4) 알파벳, 아마존, 팔란티어, KB금융,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 등 국내외 기업 실적, 5) 코스닥 FOMO 지속 여부 등에 영향 받으면서 변동성 장세를 보일 전망이다(주간 코스피 예상 레인지, 5,050~5,350pt).

30일(금) 미국 증시는 샌디스크(+6.9%), 애플(+0.5%) 호실적에도, 케빈워시 차기 연준의장 여파, 금(-11.1%), 은(-31.1%) 등 투기수요가 급증했던 귀금속 폭락 사태 등으로 장중 변동성이 큰 폭 확대되며 약세다우 -0.4%, S&P500 -0.4%, 나스닥 -0.9%.

이날 달러화 강세 및 금리 상승, 그에 따른 주식, 귀금속 등 자산가격 조정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케빈 워시 차기 연준의장 지명에 대한 금융 시장의 초기 반응은 부정적인 모습. 케빈 워시 차기 의장이 1) 금리인하를 지지하면서도 양적 긴축에는 반대해왔으며, 과거 경기 침체 당시에는 인플레이션 리스크를 주장하는 등 매파적 성향 인물이라는 점에서 기인. 또 파월 의장을 수없이 노골적으로 비판해왔던 트럼프가 그의 입맛에 맞춰 금리 인하를 단행할 인물로 케빈 워시를 지명했다는 점은 연준의 독립성 훼손 논란도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

그러나 아직까지 Fed Watch 상 연준의 금리 인하 스케줄은 연내 2회로 유지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첫 금리인하 시점은 6월 FOMC, 인하 확률 47%). 이는 연준은 본질적으로 데이터 의존적인 의사 결정을 하는 주체이며, 케빈 워시 역시 트럼프의 주문대로 독단적인 의사결정을 하는데 한계가 있을 것임을 시사.

이번 주에도 귀금속 폭락 여진 속 차기 연준 의장의 성향 분석을 둘러싼 수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변동성이 확대될 전망이다. 다만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자체가 초래할 가격 변동성은 단기에 그칠 것으로 판단. 이보다는 주중 예정된 주도주들의 실적, 섀다운 충격이 제거된 1월 비농업 고용 등 주요 경제지표에 무게중심을 두고 시장 대응을 해 나가는 것이 적절.

매크로 상으로는 1월 ISM 제조업 PMI(컨센 vs 12월 47.9)도 중요하지만, 지난 수개월 간에 걸쳐서 체감해왔듯이, 주식시장의 방향성이나 한국 수출과의 관련성이 이전보다 크지 않다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 현재 한국 수출은 미국의 수요 변화에 덜 민감하고 슈퍼 사이클 기대감 섞인 반도체 중심의 양극화 장세 지속되고 있기 때문. 1월 중 발표된 한국의 수출(YoY +33.9% vs +컨센 29.9%)이 반도체(12월 +43.2% -) 1월 +102.7%) 수출 급등에 힘입어 서프라이즈를 기록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

따라서, 주 후반 예정된 1월 고용지표가 매크로 상 이번주 메인 이벤트가 될 예정. 현재 신규고용과 실업률 컨센서스는 각각 7만건(vs 12월 5만건), 4.4%(vs 12월 4.4%)로 지난달에 비해 소폭 개선되는데 그칠 것으로 형성된 상태. 이번 고용지표는 섀다운 여파로 왜곡됐던 데이터 안개 현상이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차기 연준 의장 지명 이후 처음으로 확인하는 지표라는 점을 감안 시, 주 후반으로 갈수록 관련 경계 수위가 증시 내 높아질 수 있음에 대비할 필요.

주식시장 내부적으로는 지난주에 이어 국내외 주도주 실적 이벤트가 중요. 미국에서는 알파벳, 아마존, 팔란티어, AMD 등 M7 및 AI 관련주 실적이 예정. 지난주 실적 발표한 메타(실적 발표

당일 +10%), MS(-10%)의 극명한 주가 차별화가 시사하듯이, 시장에서는 대규모 CAPEX 투자의 정당성을 수익성으로 확인하려는 욕구가 강해진 상황. 이를 감안 시, 현재 AI 수요 급증을 고려해 알파벳, 아마존 등 하이퍼스케일러 업체들은 CAPEX 가이드언스를 추가로 상향할 가능성이 높지만, 실적의 컨센 상회 여부 및 본업(알파벳: 구글 클라우드 및 제미니 AI 수익화, 아마존: AWS 및 광고 사업 실적)의 수익성 개선 여부에 시장의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팔란티어의 경우, 고 밸류에이션 부담(선형 PER 160배 수준) 속 ICE와 협력 논란 등이 연초 이후 20% 가까운 주가 조정을 겪은 만큼, 정부 및 상업용 매출의 고성장세를 시장에 재확인시켜 줄 수 있는 지가 주가 반등의 촉매 역할을 수행할 전망이다.

국내 증시에서는 한화오션, 한국항공우주, KB금융과 같은 조선, 방산, 은행 등 주도주 실적이 대기 중. 지난주에는 코스닥 폭등 속 코스피 내 반도체, 자동차에 비해 재료 부재 인식으로 주가 상승 탄력이 크지 않았던 상태. 그러나 고유의 재료(수주 모멘텀, 주주환원)는 유효하기에, 이번 실적 발표 이후 이들 업종으로 수급 이동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대응 전략에 반영할 필요.

사실 국내 증시에서는 모든 관심이 코스닥에 쏠려 있는 모습. 지난 금요일 1% 넘게 하락하기는 했지만, 이번 달 코스닥 상승률(+24.2%)은 1996년 집계 이후 역대 5위권에 해당될 정도로, 역대급 폭등 랠리를 사실상 일주일 만에 기록. 여전히 정부가 만들어낸 코스닥 3,000pt 내러티브와 ETF를 중심으로 한 개인의 공격적인 매수심리는 쉽게 꺾이지 않는 분위기.

이를 감안 시, 이번주에도 코스피보다 코스닥에 대한 국내 시장 참여자들의 매매 집중세가 이어질 전망이다(지난주 ETF 수급과 연관된 금융투자의 코스닥 순매수 규모는 10조원 대로 주간 단위 사상 최대). 현재 코스닥이 실적, 밸류에이션이 아닌 기대감, 수급으로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환경인 것은 맞음. 다만, 미국발 불확실성(차기 연준의장, 귀금속 폭락 여진 등)이 지난주 폭등에 따른 차익실현 유인을 키울 수 있기 때문, 단기적으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대응해 나가는 것이 적절.

국내 주식시장 주요 지수 기간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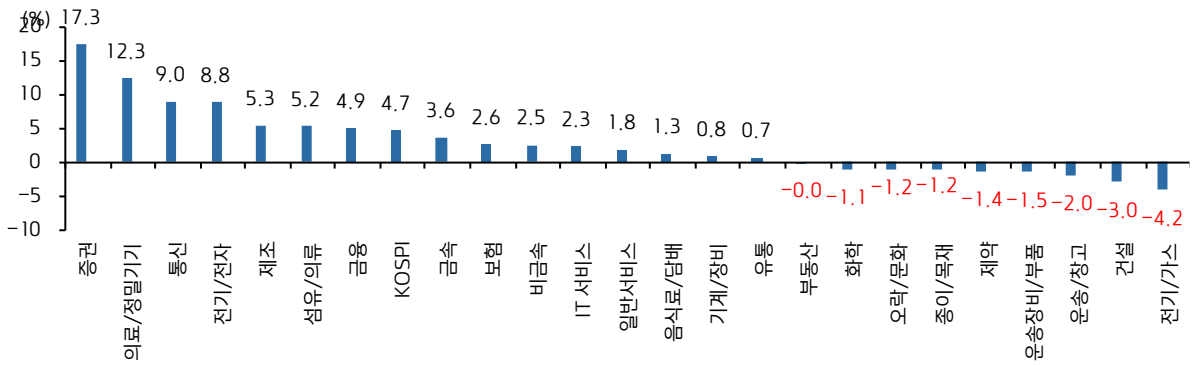
| 시장 | 증가(pt) | 기간별 수익률 | | | |
|---------|----------|---------|--------|---------|--------|
| | | D-1(%) | D-5(%) | D-20(%) | YTD(%) |
| 코스피 | 5,224.36 | 0.1 | 4.7 | 24.0 | 24.0 |
| 대형주 | 5,526.33 | 0.1 | 5.0 | 26.2 | 26.2 |
| 중형주 | 4,154.19 | -0.4 | 2.3 | 11.6 | 11.6 |
| 소형주 | 2,650.35 | -0.1 | 2.6 | 5.3 | 5.3 |
| 코스피 200 | 768.41 | 0.4 | 5.7 | 26.8 | 26.8 |
| 코스닥 | 1,149.44 | -1.3 | 15.7 | 24.2 | 24.2 |
| 대형주 | 2,990.03 | -2.1 | 23.9 | 32.8 | 32.8 |
| 중형주 | 1,096.31 | 0.0 | 11.5 | 21.9 | 21.9 |
| 소형주 | 2,856.21 | -0.9 | 4.2 | 11.0 | 11.0 |
| 코스닥 150 | 2,052.25 | -2.1 | 23.9 | 32.6 | 32.6 |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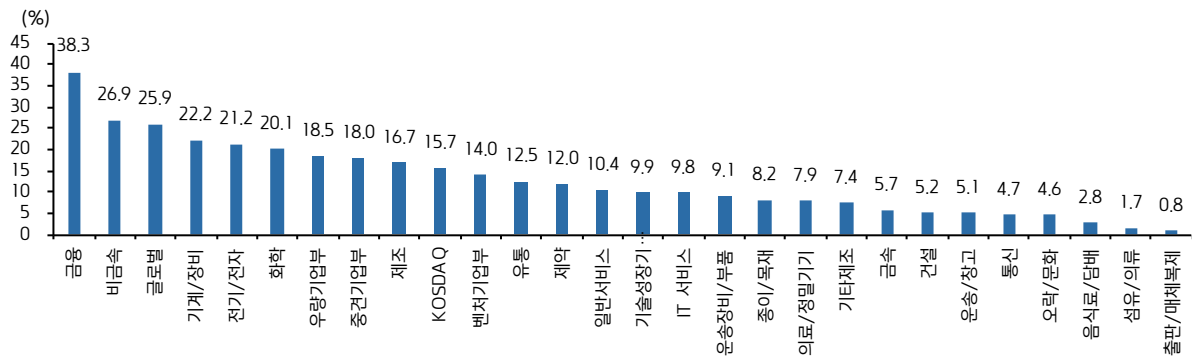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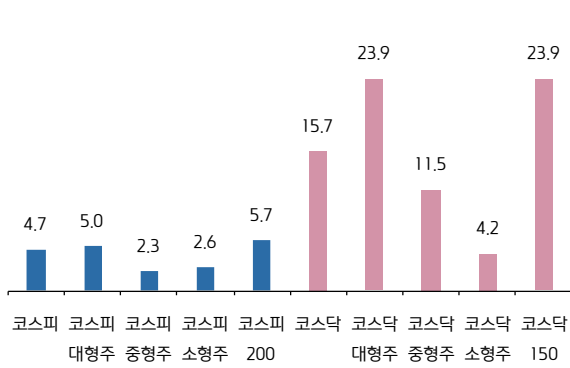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업종별 주간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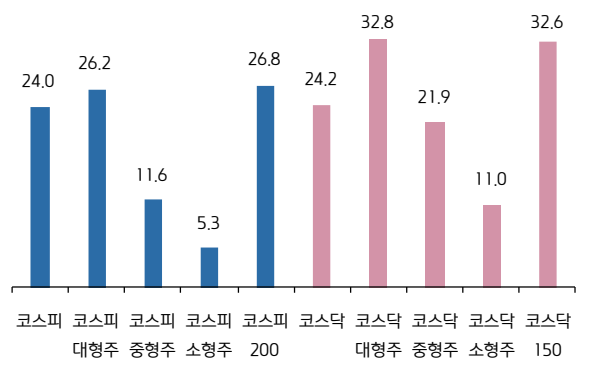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주간 수익률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지수 연초 대비 수익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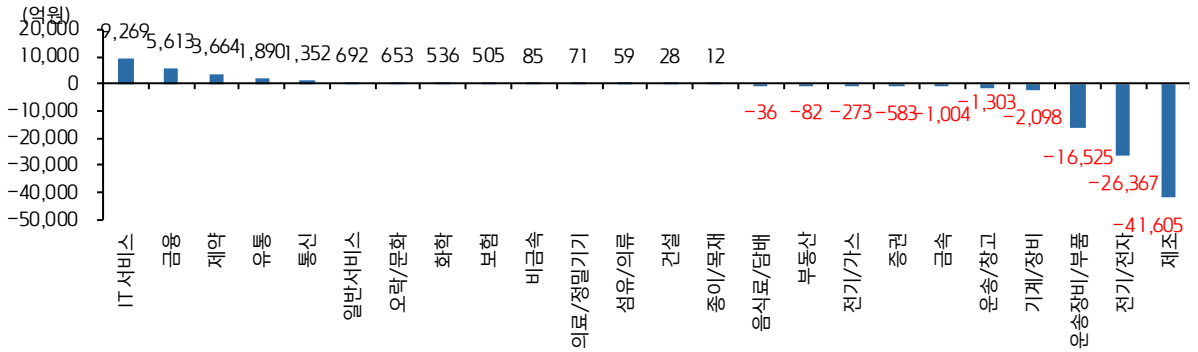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월 2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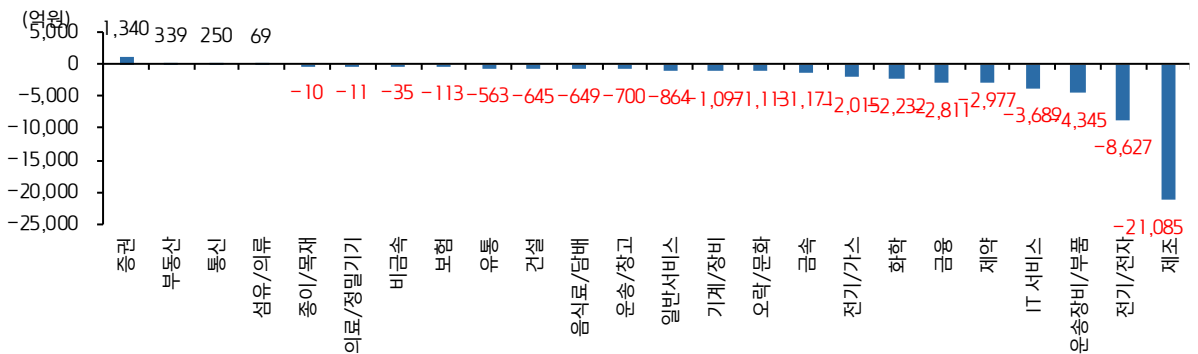
KIWOOM WEEKLY

KOSPI 업종별 외국인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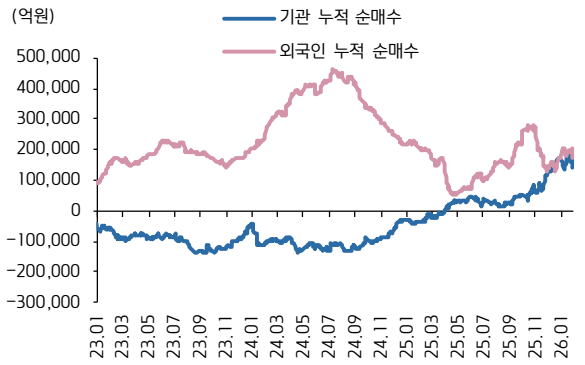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업종별 기관 주간 누적 순매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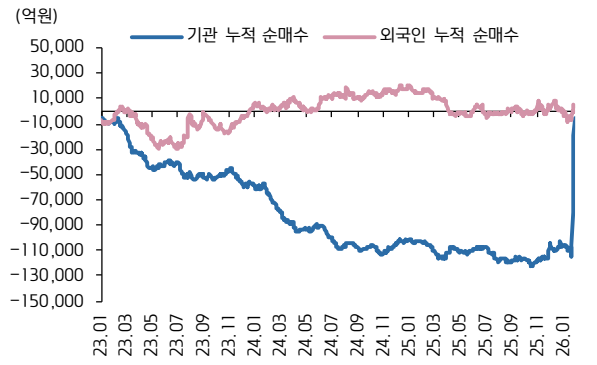
출처: Infomax,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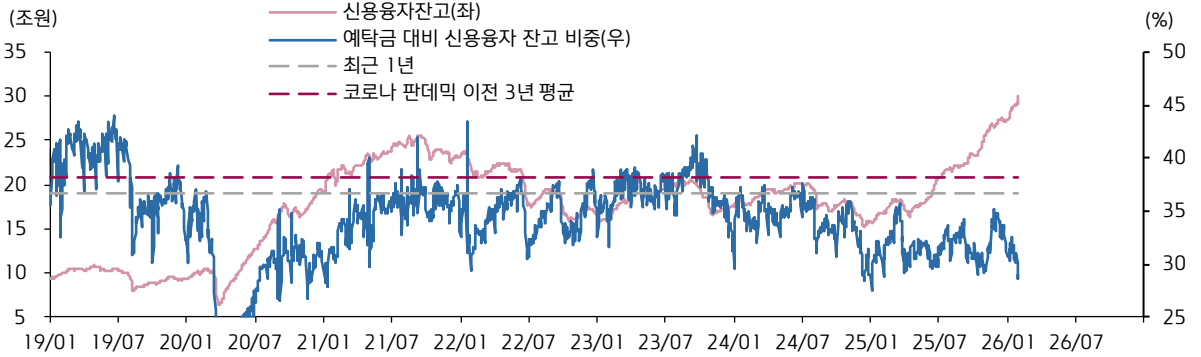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DAQ 기관, 외국인 누적 순매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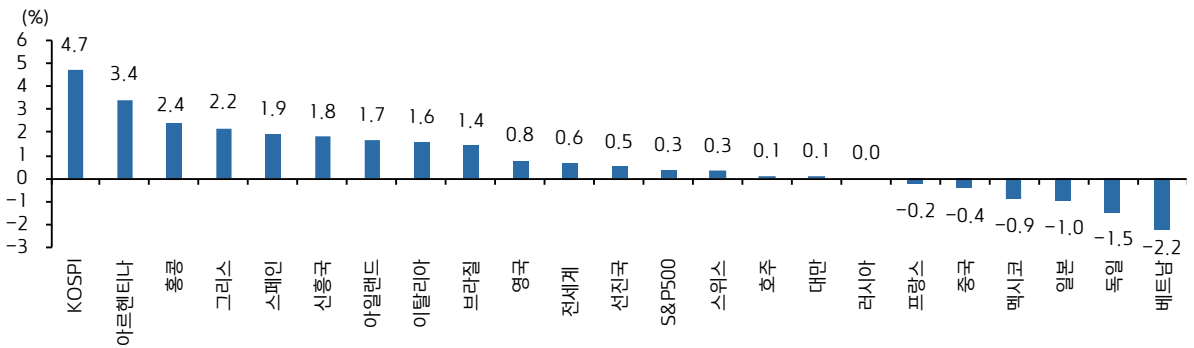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KOSPI+KOSDAQ 신용유자잔고 및 예탁금 대비 신용유자 잔고 비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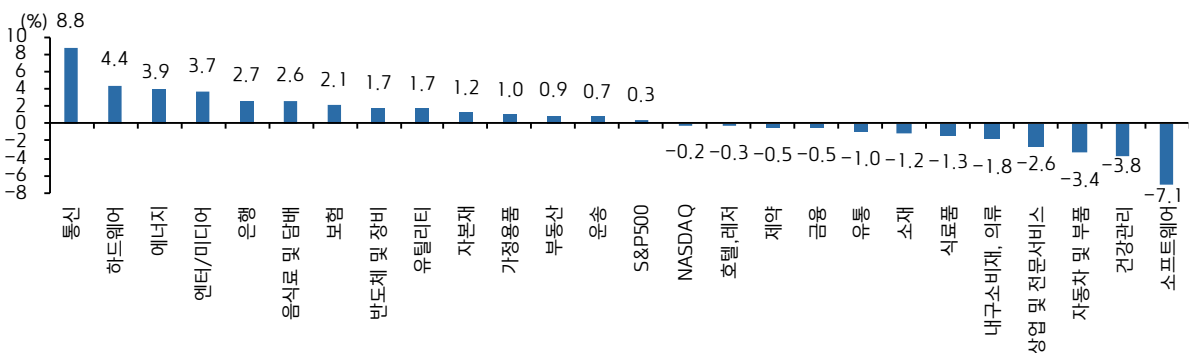
출처: FnGuide,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주요 글로벌 증시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미국 26개 업종별 주간 등락률



출처: Bloomberg, 키움증권 리서치센터

2026년 1월 26일

KIWOOM WEEKLY